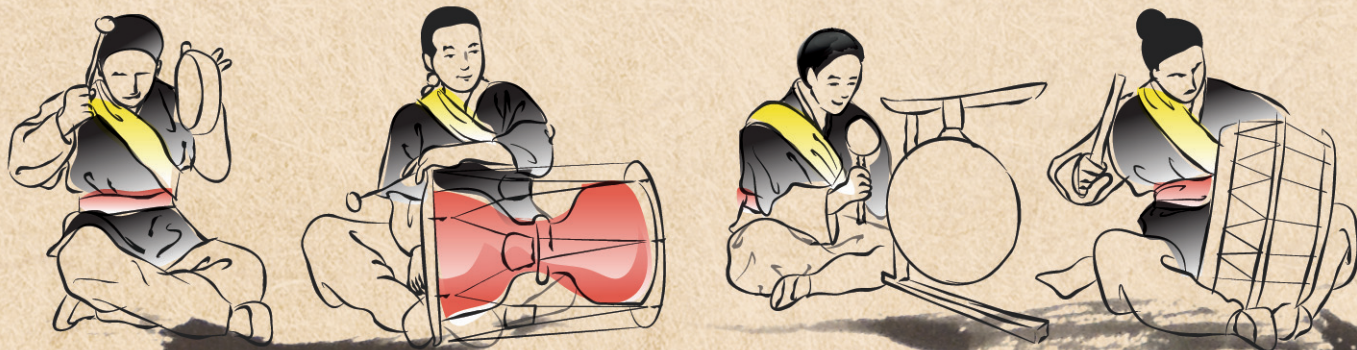




社團
法人 韓國國樂協會 全羅南道支會

58307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로 656-20 (1층)
전화 : 061)331-2360



第44回

南道國樂祭

2023. 5. 19(금)~20(토) 오전 10시

장소 장성군 홍길동체육관

주최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주관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장성군지부

후원 전라남도, 장성군, 한국국악협회, 전남예총



대회사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따스한 햇살과 봄꽃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5월, 제44회 남도국악제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장성에서 남도국악제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국악은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 우리가 만든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국악을 발전시키고 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남도국악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도국악제에서 전통적인 국악의 모습을 서로 보고 즐기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44회 남도국악제를 통해서 국악인들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신설된 지부별 축하공연에서 각 지부의 멋을 한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와주신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남도국악에 흠뻑 취하실 수 있는 좋은 국악 경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도국악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김한중 장성군수님과 장성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5. 20.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송 호 중

축 사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장성에서 ‘제44회 남도국악제’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가 막을 열기까지 정성껏 준비해주신 송호중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유산인 국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국악인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예향 전남은 예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워왔습니다. 특히, 남도의 소리는 민중의 애환을 노래하며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판소리의 양대 산맥인 서편제와 동편제, 애절한 한을 간직한 아리랑과 육자배기 모두 자랑스러운 남도의 소리입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남도의 가락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강강술래,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남도국악제는 이러한 국악을 전승·보존하고,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조들의 숨결이 서린 우리 국악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악의 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신명나고 구성진 가락이 도내 곳곳에 울려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44회 남도국악제’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0.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환영사



전남 국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군수 김한중입니다.

5월 황룡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봄꽃이 장관을 이루는 장성에서 전남 대표 국악제인 「제44회 남도국악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성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주신 (사)한국국악협회 송호중 전라남도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통문화의 계승을 비롯해 국악 예술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국악인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삶과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귀중한 소리이자,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국악을 소재로 한 대중음악이나 퓨전그룹들의 활동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국악이 세대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의 남다른 집념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같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오늘날 민간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판소리와 산조의 진원지이자, 전통음악의 보고인 우리 남도 지역 국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리는 남도국악제를 위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라며, 경연 후에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도 함께 즐기면서 모두가 흥겹고 감동이 있는 화합의 장으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남도국악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0.

장성군수 김 한 중

축사



문향의 고장 장성에서 전통 국악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악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44회 남도국악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장성을 찾아주신 국악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국악협회 송호중 전라남도 지회장님, 유수정 장성군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 개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한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은 우리 민족만이 지닌 고유한 문화예술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하는 민족예술이며,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유산입니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멋진 축하공연과 함께 농악과 민요, 판소리에 이어 무용과 고수까지 5개 분야의 국악 경연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 국악의 다양한 맛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경연대회를 통해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며, 국악의 멋과 재미에 빠져들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44회 남도국악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의회에서든 국악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 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5. 20.

장성군의회 의장 고 재 진

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남도 국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이용상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숨 쉬는 장성에서 제44회 남도국악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도국악제는 남도국악의 역사적 전통과 풍부한 문화예술의 산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남도국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44회 남도국악제는 각 시군별 축하공연을 통해 전남도내 지역별 국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도국악의 조화와 함께 새로운 국악축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은 그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악은 국민의 정서와 정신을 담아,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국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남도국악제와 같은 뜻 깊은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악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한국국악협회 또한 국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제44회 남도국악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도국악제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김한중 장성군수님, 송호종 전라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0.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 용 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온 산야가 푸름으로 단장하고 생동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44회 남도국악제』가 성대히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라남도국악협회 송호종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 그리고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흥과 멋을 살리는 남도국악제는 44회가 말해주듯 도내에서 유일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경연대회이며, 농악과 남도민요, 무용, 고수, 판소리 등 우리의 문화 중에 가장 소중한 국악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입니다.

무엇보다 22개 시군 국악협회의 단합과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며, 전남국악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큰 자부심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남 장성에서 펼쳐지는 『제44회 남도국악제』가 남도의 멋과 풍류를 실감하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전남도민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뜻깊은 잔치로 치러지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0.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임 점 호

인사말씀



“신명 나는 소통.... 신명 나는 나들이. 남도국악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도 국악인 여러분! 44회 남도국악제를 황룡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문화예술이 꽃피는 저희 장성에서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남 국악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국민이 영위하는 삶의 원천은 문화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국가는 그러한 문화의 힘으로 존재가치를 높여 가며, 문화의 중심에는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그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제아무리 일류 국가를 외치고 세계적 문화를 표방하여도 허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오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깊게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리이며 숨결이라 할 수 있는 국악은 우리에게 가장 친화적인 역사의 민족성을 품은 소리이며 몸짓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지역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깊은 전통축제 ‘남도국악제’가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삶과 꿈이 켜켜이 누적되고 스며드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남도 국악제는 훌륭한 국악인들을 발굴하고 국악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장성군 김한중군수님, 송호종 도지회장님, 이하 시·군 국악협회 지부장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의 노래~ 백성의 노래’였던 우리 전통국악이 더욱 꽃을 피우길 바라며 끝으로 국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와 사랑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0.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장성군지부장 유 수 정

행사요강

- 목 적** : 국악전통예술의 보존으로 주체적 향토문화 창달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대회명칭** : 제44회 남도국악제
-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20(토) 오전10시
- 장 소** : 장성군 홍길동체육관
- 주 최** :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장성군지부
후 원 : 전라남도, 장성군, 한국국악협회, 전남예총

6. 행사일정

첫 째 마 당		둘 째 마 당	
5월19일 (금) (9:30 ~ 17:00)	1. 고수부문 (신인부, 노인부, 일반부)	5월20일 (토) (10:00 ~ 18:00) 체육관	1. 식전 축하공연 (대취타)
	2. 남도민요부문		2. 개막 축하공연 (뿌리깊은나무)
	3. 축하공연 (고흥 마동벽구놀이)		3. 개 막 식
	4. 판소리부문 (신인부, 노인부, 일반부)		4. 농악부문경연
	5. 축하공연 (놀이형 강강술래)		5. 축하공연 (진도북놀이)
	6. 무용부문		6. 농악부문경연
		5월20(토) (11:00~14:30) 문예회관 소극장	7. 축하공연 & 대동한마당 김준수, 나광진외 트롯가수
			8. 시상 및 폐막 (개인 및 단체)
			고수, 민요, 판소리, 무용부문 결선 축하공연 (합복)



- 7. 심사기준 :**
-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예선점수는 90점~99점, 본선은 95점~99점의 범위내에서 배정한다.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등위 결정, 동점일 경우 연장자순, 또는 출연자 수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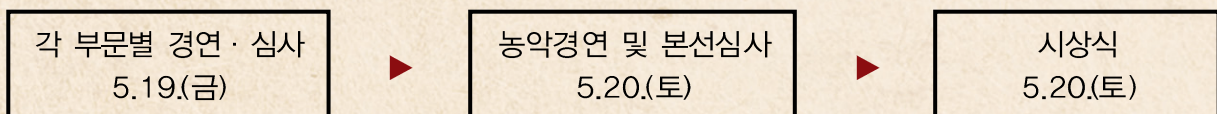
8. 경연 종목 및 시간

부 문	내 용	소요 시간
농 악	• 20명 이상으로 구성	15분
남도민요	•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음(인원 제한 없음)	5~7분 이내
판 소 리	•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참가자 인원 제한 없음	신인부 5분 이내 노인부 5분 이내 일반부 7분 이내
무 용	•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음(인원 제한 없음)	6분 이내
고 수	•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참가자 인원 제한 없음 • 신인부, 노인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 일반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모리)	신인부 5분 이내 노인부 5분 이내 일반부 6분 이내

※ 경연 시간은 진행 관계상 변경될 수도 있음.

- 9. 참가 자격 :** 전남국악협회 회원. (시·군지부장 추천자)
- 판소리 및 고수 노인부는 2023년 기준, 현재 70세 이상인자.
- 21년, 22년 대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참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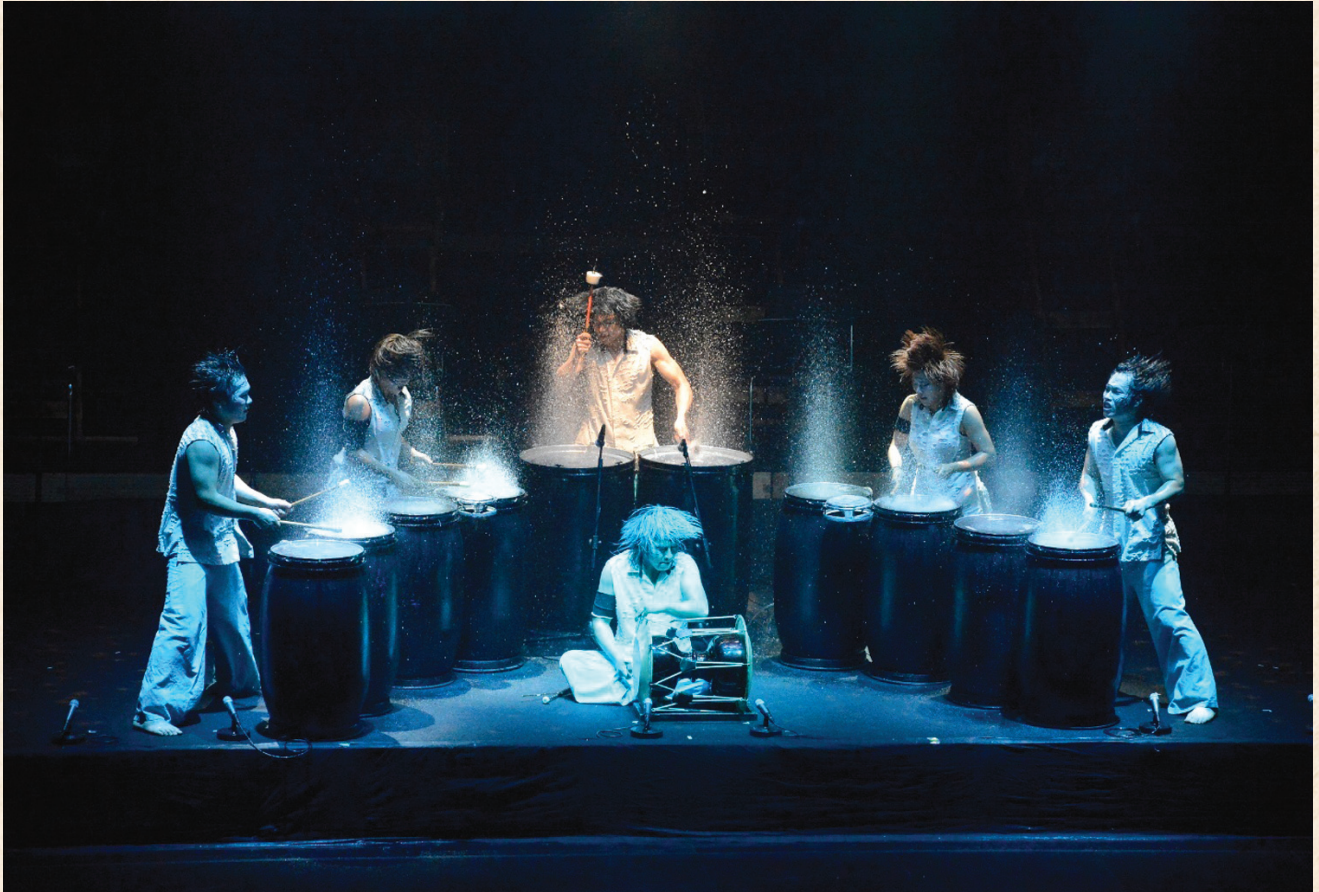
10. 심사 및 시상



※ 행사문의 : 나주시 봉황면 봉황로 656-20 1층 전남국악협회 ☎061)331-2360

개폐회식 축하공연

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명의 호흡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여 나빌레라 예술단과 소리꾼 이은비씨와 재창조한 작품이다. 원초적 느낌을 원초적 소리인 타악과 춤 판소리로 표현하여 재미와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주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관객들이 쉽게 다가 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전통고유의 놀이와 연주로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고 함께 뛰어 놀며 집단신명을 만들어가므로써 공동체의 장을 만든다.

출연진 /

얼쑤타악그룹 -고창길,이명운,김대선,황인상,김지은,노준영

나빌레라무용단 -한명선,이반야,김지유,국서경,이경서,박수빈

소리/구음 -이은비

대취타



예로부터 임금이나 관리, 또는 귀한 손님의 행차시 연주되던 전통의전곡으로
나발·나각·태평소의 관악기와 용고·바라·팽가리·징·장구·운라 등의 타악기로 구성된다.
남도국악제의 출발을 알리는 개막 퍼레이드와, 취타대의 대형을 이동하며 펼치는 마칭에, 사물판굿의
연희를 접목하여 흥겨운 잔치의 시작을 알리고 참석한 내빈들을 자연스럽게 단상으로 모신다.

출연진 / 김경선, 배양순, 추성민, 한아름, 양지숙, 전남숙, 전현숙, 김영옥, 노숙자, 명윤실, 김영숙
강애경, 강민숙, 김정숙, 강경숙, 지경숙, 신남순, 정임순, 강진숙, 오효숙, 이명진, 김혜정
김명순, 김혜연, 최혜숙, 오은정

진도북놀이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는 진도지방에서 전해져 오는 북놀이로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쌍북채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가락을 구사한다.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흥겨운 가락 사이에서 구성된 멋이 즉흥적으로 창출되어 춤사위가 고조된다. 구름이 곁들여져 더욱 풍성한 예술의 꽃이 피워진다. 이번에 선 보일 박관용류 진도북놀이는 유연한 손동작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살풀이성 굿거리, 자진몰이 장단에서 굿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빠른장단으로 몰아가면서 더욱 깊은 신명을 자아낸다. 그리고 다시 굿거리로 풀어내어 보는 이의 마음을 달래준다.

출연진 / 박연희

반주: 김영순, 노준영, 정은아

고흥마동벽구놀이



마동벽구놀이는 마동별신제에 수반(隨伴)된 벽구놀이로서 임란(壬亂) 장군(宋將軍) 전세(戰勢) 선갈책(先策)으로 위시(爲始)할 만큼 씩씩하고 경쾌함이 으뜸이다.

또한 수백년을 이어져 전래한 때 묻지 않은 전통 곳으로서 조상님과 선배님들께 물려받은 전통성의 의의(意義)가 태산 같다 할 것이다.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63호지정

제45회 전남민속예술제 대상

제22회 전국농악명인전 대상

출연진 / 송석래, 송선경, 황재중, 송재복, 송중관, 신경란, 신유식, 송경호, 정대규, 송오석, 송경석
김윤태, 송순호, 하정애, 송점자, 송하윤, 김지희, 윤순남, 송선희, 신명순, 서정숙, 송기만
강복심, 송삼선, 김맹순, 이정임, 선순애, 송규철, 윤추례, 김정순, 송진섭, 신현식, 신이우
신현식, 이흥재

놀이형 강강술래



세계유네스코지정 무형문화재인 해남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인 강강술래를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하여 새롭게 개발한 놀이형 강강술래로, 예전 농사짓던 과정을 표현한 작품.

출연진 /

별룡술래놀이단 - 윤정자, 김금숙, 양춘자, 유혜영, 박안희, 김정희, 김순이, 김옥순,
유덕희, 박미경, 김화엽, 김안숙

합북



박봉서 선생님 지도로 사철가(단가) 소리에 중모리장단(원박 4 달고맏고 1)

1명의 창자와 여러명의 고수들과 장단을 치며 합을 이루는 작품으로 북소리에 희·노·애·락을 담아내었다.

출연진 / 안준섭, 김남수, 김병원, 김순임, 김용기, 박동근, 박영희, 박원희, 성한순,

오미례, 양옥자, 이영미, 홍영표, 황의갑,



김 준 수

출신 : 전남 강진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2013 ~ 국립창극단 단원
 2010 국립창극단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 선정
 2009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 선정
 2021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대상



나 광 진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수상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문화예술부문 대상)
 KBS 아침마당 공감토크 패널
 KBS1 TV쇼 진품명품 패널



통일가수 겸 배우 김혜영

대표작 sbs드라마 (덕이)

대표곡 / 반갑습니다, 휘파람, 첫사랑오빠

설운도가수님과 듀엣곡 / 님이 오는 계절

나광진 가수님과 듀엣곡 / 사랑합니다

신곡 설운도 작사작곡 / 꼭 만나요, 어떡해



진 주 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수상

1~3집 앨범발표/ 청춘의뒀,불같은 여자, 종점, 걱정마

독일 베를린가요제 초청 등 해외공연 다수

시상내용

	구 분	훈 격	팀(인원)	비 고
종합대상	단체 종합대상	전 라 남 도 지 사	1	우승기
	단체 종합최우수상	장성군수	1	상장수여
	단체 종합우수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1	상장수여
	단체 종합장려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2	상장수여
	대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상장수여
농악부문	대 상	전 라 남 도 지 사	1	상장수여
	최우수상	장성군수	1	상장수여
	우 수 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2	상장수여
	장 려 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12	상장수여
남도민요	대 상	전 라 남 도 지 사	1	상장수여
	최우수상	장성군수	1	상장수여
	우 수 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1	상장수여
	장 려 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2	상장수여
무용부문	대 상	전 라 남 도 지 사	1	상장수여
	최우수상	장성군수	1	상장수여
	우 수 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1	상장수여
	장 려 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2	상장수여
판소리부문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대 상	전 라 남 도 지 사	3	상장수여
	최우수상	한국국악협회이사장	3	상장수여
	우 수 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3	상장수여
	장 려 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6	상장수여
고수부문 (일반부, 신인부, 노인부)	대 상	전 라 남 도 지 사	3	상장수여
	최우수상	한국국악협회이사장	3	상장수여
	우 수 상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장	3	상장수여
	장 려 상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6	상장수여
개인상	농악부문	한국국악협회전라남도지회장	4	상장수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역대 종합대상 우승 지부명단

횟수	연 도	개최장소	우승지부명
1~7 회	1979.~1985.	광주남도예술회관	~회원발표~
8 회	1986.10.22~23	남도예술회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개인별시상
9 회	1987. 8. 28	여수시민회관	영광지부
10 회	1988. 7. 30	순천팔마경기장	진도지부
11 회	1989. 8. 29	여수시민회관	해남지부
12 회	1990. 8. 7	영광실내체육관	순천지부
13 회	1991.5.23~24	고흥군민회관	고흥지부
14 회	1992.5.15~16	나주실내체육관	나주지부
15 회	1993.4.26~27	여천시흥국체육관	여천지부
16 회	1994.6.16~17	승주실내체육관	승주지부
17 회	1995.5.14~15	순천팔마실내체육관	순천지부
18 회	1996.5.19~20	보성종합체육관	진도지부
19 회	1997.4.10~11	진도향토문화회관	순천지부
20 회	1998.4.17~18	해남실내체육관	구례지부
21 회	1999.4.29~30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지부
22 회	2000.4.18~19	영광실내체육관	여수지부
23 회	2001.4.29~30	강진군민회관	강진지부
24 회	2002.5.20~21	목포실내체육관	무안지부
25 회	2003.4.21~22	구례실내체육관	구례지부
26 회	2004.5.10~11	완도실내체육관	여수지부
27 회	2005.8.29~30	고흥팔영체육관, 종합문화회관	진도지부
28 회	2006.7. 9~10	해남우슬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여수지부
29 회	2007.4.7 ~ 8	여수흥국체육관, 진남문예회관, 시민회관	순천지부
30 회	2008.5.9~10	함평문화체육센터	구례지부
31 회	2009.4.19~20	구례실내체육관	진도지부
32 회	2010.5.15~16	고흥군팔영체육관	순천지부
33 회	2011. 5. 7~8	장성홍길동체육관	목포지부
34 회	2012.5.1~2	무안스포츠파크	목포지부
35 회	2013.4.22-23	순천팔마실내체육관	보성지부
36 회	2014.6.9-10	완도군농업인문화체육센터	광양지부
37 회	2015.5.27-28	진도실내체육관	진도지부
38 회	2016.5.12-13	광양실내체육관	고흥지부
39 회	2017.5.22-23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함평지부
40 회	2018.5.23-24	곡성군문화체육관	순천지부
41 회	2019.4.27-28	함평군문화체육관	진도지부
	2020.5.16-17	코로나19 개최취소	
42 회	2021.11.26	화순하니움문화센터 적벽실, 만연홀	해남지부
43 회	2022.6.23-24	여수 진남실내체육관	화순지부